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뿐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4월 17일(월) 총 3매	
담당 부서	데이터산업과	담당자	• 빅데이터팀장 이재만 ☎440-2101 • 담당자 김경화 ☎440-210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인천데이터허브 구축 본격화

- 데이터의 수집·활용·공유·개방관리를 통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

- 인천데이터허브 구축(1단계) 사업 발주 -

인천시가 인천데이터허브구축 사업을 본격화 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인천데이터허브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총40여 억 원을 투입해 고품질의 데이터를 수집개방해 데이터의 가치 재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수요기관과의 공유개방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인천데이터허브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인천데이터허브 구축의 발전 방향성과 목표시스템을 설계했으며 최근 인천데이터허브 구축 1단계 사업을 발주했다.

올해 중점 추진사업은 ▲데이터 통합수집을 위한 데이터 저장소 구축

▲사용자 중심의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고도화 ▲대시민 데이터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천데이터포털 재구축 ▲인천데이터허브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프라(서버, 소프트웨어) 구축이다.

시는 시 뿐만 아니라 군·구, 산하기관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모아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의 기반을 조성하고 원천데이터를 포함해 가공·분석한 데이터를 다시 대학, 연구기관, 기업, 시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인천데이터허브가 구축되면 데이터 수집·제공 수단 부재로 인한 데이터 신뢰도 문제, 정형·비정형 데이터 처리기능 부재로 인한 데이터 공유 불가 및 개방 데이터 부족 등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데이터서비스 제공으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시민중심의 데이터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인천데이터허브 개념도

